

## 주기도문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Πάτερ ἡμῶν, ὁ ἐν τοῖς οὐρανοῖς)”와 기독교 공동체 윤리

유 경 동 \*

【주제어】 주기도문, 공동체윤리, 아버지, 하늘, 우리

【요약문】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각 사상가마다 ‘주기도문’의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 이는 ‘주기도문’이 매 시대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각기 새롭게 다가왔기 때문인데, 시대의 정황, 기도하는 이들의 실존,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와 연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을 성서 신학의 관점으로 연구한 경우는 흔히 보지만 기독교 윤리학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해석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필자는 주기도문 첫 머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공동체의 윤리적 관점들을 강조하고, 그 의미를 현대 기독교 윤리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보았다. ‘하늘’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적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

공간이자 동시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간으로써 공동체적 특성을 드러낸다. ‘우리’라는 의미는 주기도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에서 온전히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과 형제됨으로써 고백하는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하는 인류를 향한 사랑의 언표이다. 이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기대하게 되고, 궁극적인 구속을 기다리는 은총의 공동체를 전제하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속성은 육신의 관계로서의 남성성을 의미하는 아버지가 아닌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주권자, 삼위일체의 위격을 대표하는 하나님, 심판이 아닌 용서하여 주시는 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됨을 선포하는 공동체적 언표이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개인적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으며,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모형으로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I. 서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각 사상가마다 ‘주기도문’의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 이는 ‘주기도문’이 매 시대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각기 새롭게 다가왔기 때문인데, 시대의 정황, 기도하는 이들의 실존,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와 연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을 성서 신학의 관점으로 연구한 경우는 흔하지만 기독교 윤리학의 관점에서 그 의의를 해석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필자는 이 글에서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역사해석의 방법론을 통하여 기독교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상가들이 해석한 주기도문에서 ‘공동체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둘째, 주기도문 첫 머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공동체의 윤리적 관점을 강조하고 그 의미를 현대 기독교 윤리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보겠다. 특히 기독교 사상가들이 ‘하늘’, ‘우리’, 그리고 ‘아버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봄과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공동체의 윤리적 특징을 강조하도록 하겠다.<sup>1)</sup> 셋째, 위의 세 단어의 해석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독교윤리의 요소들을 제시하여 보겠다.

주기도문은 크리스천에게 가장 많이 암송되는 기도이지만 자칫 개인적 경건에 치우쳐 책임과 의무가 간과되고 하나님의 뜻만 기대하는 ‘정적주의(stillness)’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통하여 발견하는 공동체적 윤리의 특징은 기독교윤리학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이 그러한 요청에 부응하는 글이 되기를 바란다.

---

1) 참고로 필자가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사상가들은 다음과 같다. 오리겐네스(Origen, 184/5~253/254), 키프리아누스(Thascius Cacilius Cyprianus, 200~258),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354~430),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5~1274),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장 칼뱅(John Calvin, 1509~1564), 존 라이트풋(John Lightfoot, 1602~1675), 매튜 헨리(Matthew Henry, 1662~1714), 존 길(John Gill, 1690~1771),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 아키발드 로버트슨(Archibald T. Robertson, 1863~1934), 카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 존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 1927~1997), 판넨베르크(Wolfhart Pannenberg, 1928~2014), 레오 나르도 보프(Leonardo Boff, 1938~),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 1940~), 톰 라이트(Nicholas Thomas Wright, 1948~).

## II. 주기도문의 공동체성과 기독교 윤리적 의의

필자가 이 글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공동체성이다. 주기도문을 해석한 여러 사상가들의 글을 참고하여 보면 특히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특성에 대하여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3세기 카르타고의 주교이자 순교자인 키프리아누스는 주기도문의 공동체적 특성을 강조했다.<sup>2)</sup>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교사이자 일치의 주님’으로 설명하며, 주기도문의 본질은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 즉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보았다.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용서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공적이고 보편적이라고 강조하였다.<sup>3)</sup> 키프리아누스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전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평화의 하나님, 우리에게 일치와 용화를 가르치신 화합의 교사이신 주님이 우리가 모든 인류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신다고 보았다.<sup>4)</sup>

키프리아누스는 주님 자신이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낳으신 것과

2) 이하 키프리아누스의 주기도문 논문의 직접 인용 출처는 아래를 참고하였다. Cyprian of Carthage, “Treatise on Lord’s Prayer,” ed. Alexander Roberts, James Donaldson, and A. Cleveland Coxe, trans. Robert Ernest Wallis, *Ante-Nicene Fathers*, vol.5 (Buffalo, NY: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86), Treatise 4. New Advent 홈페이지, 2009년 최종 수정, <http://www.newadvent.org/fathers/050704.htm>. [2018.8.31. 최종 접속]. 참고로 키프리아누스의 주기도문 인용 출처는 별도의 페이지가 없는 plain text임을 밝힌다. 위의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에 대하여서 ‘New Advent’에서는 ‘Treatise 4’로 표기되었다.

3) *Ibid.*

4) *Ibid.*

같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개인이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더 적합하며, 주기도문을 공동체적으로 읽으면 성령으로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경에 대한 믿음에 확신을 주기에 그 결과로 평화롭고 진정한 영적 기도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sup>5)</sup> 키프리아누스는 예수가 승천한 후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 공동체적인 주기도문을 사용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인용하며 “사도들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계속 기도를 드렸다”고 표현하였다. 즉,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일치된 기도를 계속 드렸고, 이들은 하나님을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셨음을 인정했으며, 또한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기도를 드렸다고 지적하였다.<sup>6)</sup>

존 라이트풋은 주기도문에 포함된 간청과 구절들은 본래 유대교의 기본적인 기도의 요약 형태라고 주장한다.<sup>7)</sup> 예를 들어, 본래 유대교의 기도 범례는 18가지 기도 제목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당시 여러 랍비 문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이트풋은 특히 가말리엘의 영향으로 현재 주기도문과 같은 순서의 기도문이 형성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기도의 표본에 유대교가 영향을 미쳤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sup>8)</sup> 예를 들어, 유대

---

5) *Ibid.*

6) *Ibid.*

7) 존 라이트풋은 17세기 유대 문헌 연구가로서 성서를 비롯한 유대교 법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해석을 동원하고, 탈무드를 바탕으로 신약성서를 해석한다. 특히 1세기 초대 교회 문화에 드러나는 유대교적 흔적을 통해 신약성서 및 복음서를 이해함으로써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유대교 전통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Abby Zwart, “Summary of John Lightfoot’s *From the Talmud and Hebraica*,”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http://www.ccel.org/ccel/lightfoot/talmud> [2018. 8.31. 최종 접속].

인들이 드리는 18가지 기도가 있다. 이는 ‘쉬모네에스레이’라고 하는데, 주전 5세기 바벨론 포로 이후에 형성되었으며, 이 기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이고, 다음 열세 가지는 용서와 구원 그리고 건강, 재물, 때에 따른 비,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이게 해달라는 등의 간청이며, 마지막 세 가지는 예배와 감사 축복에 관한 내용이다.<sup>9)</sup>

라이트풋은 주기도문이 그 자체가 요약된 기도의 형태로서 개인 기도가 아니라, 유대교 전통에 따른 공동체를 위한 표준적 기도이고, 초대 교회는 유대교 기도의 요약 형태인 주기도문을 기도의 표준으로 고수했으며, 사실상 이외에 다른 대안도 없었다고 보았다.<sup>10)</sup> 기도하는 자는 기도할 때 항상 교회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회당에만 있어야 한다는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다. 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누구도 혼자서 이러한 요약된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오직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에만 그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sup>11)</sup> 라이트풋에 따르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각 구절마다 공동체로 기도할 것을 가르쳤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드림

8) John Lightfoot, *A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From the Talmud and Hebraica*,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79), Ch.6, I. Christian Classic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2005년 6월 1일에 최종 수정, <http://www.ccel.org/ccel/lightfoot/talmud.pdf>. [2018.8.31 최종 접속] 이하 라이트풋의 인용 출처는 위의 자료 원본의 표기를 따랐다.

9) 랍비 유대교의 18가지 기도 내용 한글 번역문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참고로 원래의 ‘쉬모네에스레이’는 18가지이고 주후 2세기에 이단자들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19가지가 되었다고 알려진다. 모든이교회 홈페이지, <http://modenee.kr/Study/Judaism/handbook/Chapter03.htm#3.13.%20%20%20%20%20%E%B%9E%8D%EB%B9%84%20%EC%9C%A0%EB%8C%80%EA%B5%90%20%EC%98%88%EC%A0%84> [2018. 8.31. 최종 접속].

10) John Lightfoot, *A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From the Talmud and Hebraica*, Ch.3, III.

11) *Ibid.*, Ch.3, IV.

으로써 교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교회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sup>12)</sup>

아키발드 로버트슨은 주기도문을 ‘표본 기도(the Model Prayer)’라 불러야 한다고 보았는데, 예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οὕτως οὖν προσεύχεσθε ὑμεῖς)”(마 6:9)라고 이방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명령했기 때문이다.<sup>13)</sup> 즉, 로버트슨에 따르면 주기도문은 예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위한 표본이고, 하나의 공식이라기보다는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하나의 범례라는 것이다.<sup>14)</sup>

디트리히 본회퍼는 기독교가 제시하는 기도의 본질은 일반적인 찬양과 같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한 간청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올바른 방식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계신 그 한 분에게만 우리의 손을 펴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5)</sup> 특히 기도와 관련하여 ‘주기도문’의 중요성은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있다고 보았으며,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의 유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기도의 방식”이라고 강조하였다.<sup>16)</sup> 본회퍼는 주기도문의 중요한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sup>17)</sup>

---

12) *Ibid.*, Ch.3, IV.

13) 헬라어 본문은 Nestle 1904년판으로, 구글(google) 홈페이지에서 인용하였다. 2016년 4월 2일 최종 수정, <https://sites.google.com/site/nestle1904/mat/6>. [2018. 8.31. 최종 접속].

14) Archibald T. Robertson,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Matthew*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30), 37. Christian Classic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2007년 7월 26일에 최종 수정, [http://www.ccel.org/ccel/robertson\\_at/wp\\_matt.pdf](http://www.ccel.org/ccel/robertson_at/wp_matt.pdf). [2018.8.31. 최종 접속].

15) Dietrich Bonhoeffer, *The Cost of Discipleship*, trans. Reginald H. Fuller (NY: Touchstone Press, 1995), 164.

16) *Ibid.*, 165.

첫째,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 둘째, 주기도문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과 기도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낱알이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셋째, 기도란 언제나 간청(petition)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 본회퍼는 주기도문이 범례로서 기도의 목적과 방식,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가 아닌 공동체적 기도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판넨베르크도 기독교의 전통적인 기도 신학을 바탕으로 주기도문을 설명한다. 그는 기독교의 영광송(송영, doxology)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행위를 찬양한다고 강조하였다. 판넨베르크는 새로운 창조 안에서 완전하게 된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당신의 피조 세계와 인간을 구원하시는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올리는 송영이야말로 종말론적인 찬양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18)</sup>

판넨베르크는 위의 해석을 전제로 감사와 연관된 기도가 주기도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기도에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고 본다. “복음서에 전해지는 예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간청하는 기도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말씀에는 이미 믿음이 전제되어 있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친교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의 표현이 들어 있다.”<sup>19)</sup> 따라

17) *Ibid.*, 167. 이하 본회퍼의 분석을 정리하였다.

18) Wolfhart Pannenberg, *Systematic Theology*, Vol.3, trans. Geoffrey W. Bromiley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208.

19) *Ibid.*, 208.



서 판넨베르크에게도 주기도문은 간청의 기도로서 피조 세계 전체가 공동체적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였다.

판넨베르크는 주기도문이 일종의 ‘간구 기도(petitionary prayer)’의 전형을 이룬다고 보며, “이 기도는 하나님을 지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지향하는 간구에 맞춰 시작된다. 이러한 간구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 그리고 배교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sup>20)</sup> 판넨베르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인간의 관심 사이의 역설의 역동성을 설명한다. 그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인간의 청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항상 격려하였다고 본다. “주기도문의 첫 세 개의 간청을 이해한 후에야 나머지 다른 간청들도 이해할 수 있다. 신자들의 역사적 상황에 있어서 미래의 열려 있음은,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연관된 위협들과 더불어, 그 자체로 기도를 위한 여지를 남겨둔다. 간구 기도를 통해 신자들은 자신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근심하는 것을 꾸짖고, 기도하라고 격려하는 것이다.”<sup>21)</sup> 판넨베르크는 이와 같은 주기도문 해석을 통해 미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을 잘 설명한다.

신약성서학자인 톰 라이트는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주기도문의 본질은 예수 자신의 기도의 삶을 제자들에게 공유하는 신앙생활로의 초청으로 이해하며, 삼위일체 신학을 근거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삶 자체에 참여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특성을 가진 것으

---

20) *Ibid.*, 208-209.

21) *Ibid.*, 209.

로 본다. 또한 주기도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전적인 변화를 요청한다고 본다.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구원과 기독교의 실존의 중심적인 신비주의에 이르는 고귀한 길 중 하나가 된다. 주기도문을 통해, 세례를 받은 기독교 신앙인은 (1) 영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면(inner life)에 참여하게 되고, 또한 (2) 이것이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내면에 참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sup>22)</sup>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주기도문에는 공동체적 특성이 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된 인류가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의 범례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이다.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 초대받아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간구가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하늘’과 ‘우리’, 그리고 ‘아버지’에 나타나는 공동체적 의미를 살펴보자. 이제 살펴볼 사상가들은 주기도문의 첫 문구를 단어별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필자는 그들의 해석을 통하여 각 단어에 나타나는 공동체적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 III. 공동체의 구속적 공간으로서의 ‘하늘’

현대와 같이 우주 과학이 발전하여 우주의 크기와 형태를 논하는 시대에 ‘하늘’은 광활한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하늘’에

---

22) N. T. Wright, “The Lord’s Prayer as a Paradigm of Christian Prayer,” in *Into God’s Presence: Prayer in the New Testament*, ed. Richard L. Longenecker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132.

하나님이 계신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저 아늑한 공간 어딘가에 계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인간과 근원적으로 구별되는 존재이심을, 그리고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오리게네스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하늘이 곧 ‘하나님의 보좌’이며, “천상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존재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곳”을 함축한다고 본다.<sup>23)</sup> 또한 하늘은 물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승천은 육체가 아니라 영의 승천으로 이해되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승천했음이 분명하다고 보았다.<sup>24)</sup> 따라서 오리게네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공동체적 신앙 고백의 선언이다. 오리게네스가 예수님의 승천을 영의 승천으로 봄으로 기존의 견해와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은 차치하고, 그가 ‘하늘’을 구원받은 이들에게 필수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본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개인적 고백을 넘어서는 공동체적 고백이었음을 분명히 한다.

한편, 아퀴나스는 “하늘에 계신”의 의미를 땅의 인간과 하늘의 하나님의 현실을 비교하며 설명하는데,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하나님의 존재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생각이 이 땅으로부터 벗어나 그대로 하늘에 고정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sup>25)</sup> 아퀴나스는 하늘을 공간으로 보면 안 된

23) Origen, *Origen on Prayer*, trans. William A. Curtis(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2001), 41.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2005sus 6월 1일에 최종 수정, <http://www.ccel.org/ccel/origen/prayer.pdf> [2018.8.31. 최종 접속].

24) *Ibid.*, 41.

25) Thomas Aquinas, *Catena Aurea: Gospel of Matthew*, trans. William Whiston (London: J.G.F and J. Rivingston, 1942), Ch.6, 224. 아퀴나스는 크리소스토무스(Chrystom)의 해석을 소개한다.

다고 지적하면서 인간은 영적인 측면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땅에 거하고, 의인과 성자들은 하늘에 거한다고 이해하였다.<sup>26)</sup> 따라서 의인과 죄인 사이의 영적인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으로 비유한다고 아퀴나스는 이해하였다.<sup>27)</sup>

칼뱅은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문구가 주기도문 전체를 아우르는 서문에 해당하고, 인간의 부정의와 연관이 된다고 이해하였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죄로 인해 거룩하지 못하다는 자각을,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기대를 의미한다고 보았다.<sup>28)</sup>

매튜 헨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에서 하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늘이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영의 세계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또한 영적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 위로 높이 올려져야만 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높여야 한다. 하늘이란 완전히 순결한 영역이며, 따라서 우리는 순결한 손을 들고, 하나님, 즉 거룩한 한 분이시며, 그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전념하여야 한다(시5:1).”<sup>29)</sup>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주체에게 열려 있는 존재이면서 하늘에 계심으로써 우리의 경배와 존경의 대상이 된다(전5:2).<sup>30)</sup>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

26) *Ibid.*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을 소개한다.

27) *Ibid.*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을 소개한다.

28) John Calvin, “Of Prayer: A Perpetual Exercise of Faith. The Daily Benefits Derived from It,” trans. Henry Beveridg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5), outline, number 40, 41. outline,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2005년 6월 1일에 최종 수정, <http://www.ccel.org/ccel/calvin/prayer.pdf>. [2018.8.31. 최종 접속]

29) 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Grand Rapids, MI: Zondervan, 1960), Ch VI, 2.

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목적에 다다를 수 있다.<sup>31)</sup>

웨슬리는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하나님이 모든 존재 위의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하시면서 모든 존재들을 축복하심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고, 하늘에 계신 존재로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의 주인이자 통치자이며, 모든 것들을 감독하고 다스리시는 존재이다.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며, 축복된 유일한 통치자이다”라고 강조한다.<sup>32)</sup>

바르트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일부로 인간이 인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위에 존재하는 곳임을 말하며,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존재인 동시에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암시한다고 본다.<sup>33)</sup> 바르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추상적인 관념으로 파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sup>34)</sup> 즉, 하나님을 설명하는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며, 하늘은 인간적인 속성으로부터 파악할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을 의미한다는 것이다.<sup>35)</sup>

---

30) *Ibid.*

31) *Ibid.*

32) John Wesley, “Sermon 26: Up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Discourse 6,” Number 6.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2007년 7월 1일 최종 수정, <http://www.ccel.org/ccel/wesley/sermons.pdf>. [2018.8.31. 최종 접속]. 참고로 인터넷 원본의 pdf 출처는 같은 제목 아래 작은 소단락 번호를 인용한다.

33) Karl Barth, “The Interpretation of the Lord’s Prayer according to the Reformers,” in *Prayer and Preaching*, Ch. III (London: SCM Press, 1964). 이하 바르트의 주기도문 해석에 대한 출처 인용은 별도의 페이지가 없는 plain text이므로 제목으로 대신한다. Worldinvisible.com 홈페이지, <http://www.worldinvisible.com/library/barth/prayerpreaching/prayerpreaching.03.htm>. [2018.8.31. 최종 접속].

34) *Ibid.*

본회퍼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지상에 거하는 것에 반해 하나님은 천상에 계심을 의미하는데, 천상에 계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존재들을 내려다보시며, 그들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고 이해하였다. 아울러 본회퍼는 주기도문을 단순히 예수가 가르친 기도의 모범으로 보지 않고,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직접 사용했던 기도의 모범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주기도문을 직접 이용하던 제자들의 기도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36)</sup>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며 인간의 통치 영역과 구별되는 영적 공간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에게 열려 있는 곳이다. 이 공간은 사사로이 독점하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곳으로서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 따라서 ‘하늘’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적 공간이자 동시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간으로써 공동체적 특성을 드러낸다.

#### IV. 공동체의 고백으로서 ‘우리’

‘우리’라는 표현 자체는 공동체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의미는 일반적인 집합으로서의 뜻을 넘어서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드러나는 삼위일체적 특성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중보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사상가들

35) *Ibid.*

36) Dietrich Bonhoeffer, *The Cost of Discipleship*, 148.

은 해석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약속하셨다는 보편적인 선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는 공동체적 특성이 있다고 이해한다.<sup>37)</sup>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아퀴나스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에서 ‘우리’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그 단어는 오로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게만 유효하기 때문이다.”<sup>38)</sup>

웨슬리는 ‘우리 아버지’를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로서 아버지 되시기에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공동체성을 부각시킨다.<sup>39)</sup> 또한 웨슬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라는 공동의 고백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

37) Augustine of Hippo, “On Lord’s Prayer,” in *The World’s Famous Orations*, ed. William Jennings Bryan and Francis W. Halsey (New York: Funk and Wagnalls Company, 1906). bartleby홈페이지, 2015년 11월 20일에 최종 수정, [www.bartleby.com/268/](http://www.bartleby.com/268/). [2018.8.31. 최종 접속].

38) Thomas Aquinas, *Catena Aurea: Gospel of Matthew*, Ch. 6, 224.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2005년 6월 1일에 최종 수정, <https://www.ccel.org/ccel/aquinas/catena1.pdf>. [2018.8.31. 최종 접속]. 아퀴나스는 12세기 이후 성서 주석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Glossa Ordianaria’의 해석을 소개한다.

39) John Wesley, “Sermon 26: Up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Discourse 6,” Number 5.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2007년 7월 1일에 최종 수정, <http://www.ccel.org/ccel/wesley/sermons.pdf>. [2018.8.31. 최종 접속]. 참고로 인터넷 원본의 pdf 출처는 같은 제목 아래 작은 소단락 번호를 인용한다.

아키발드 로버트슨은 문법적인 분석을 통해, 주기도문은 예전 (liturgy)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위한 일종의 “표본 기도”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증생하지 않은 자들에게 가능한지 질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죄인이나 거듭난 자나 상관없이 부를 수 있는 우주적인 표현이라고 보았다.<sup>40)</sup>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것은 곧 새로운 창조와 회심으로 돌아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sup>41)</sup> 로버트슨은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초대받은 공동체적 속성을 강조한다.

로버트슨이 ‘우리’를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본 반면, 칼 바르트는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원의 대상이 되는 ‘인류’라고 강조한다.<sup>42)</sup> 바르트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주기도문의 서문으로서, 바르트는 이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 초대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고, 예수 자신은 “우리의 형제가 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형제들이 됨”으로써 하나가 되는 공동체적 사건이라고 주장한다.<sup>43)</sup>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은 하나님을

40) Archibald T. Robertson,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Matthew*,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30), Chapter 6.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2007년 7월 1일에 최종 수정, [http://www.ccel.org/ccel/robertson\\_at/wp\\_matt.pdf](http://www.ccel.org/ccel/robertson_at/wp_matt.pdf). [2016.8.31. 최종 접속].

41) *Ibid.*, Chapter 6, 9.

42) Karl Barth, “The Interpretation of the Lord’s Prayer according to the Reformers.”

43) *Ibid.* 바르트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영어 번역본에는 해설에서 ‘communion’, ‘joined with’, ‘union’, ‘fellowship’이라는 단어들을 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데, ‘우리 아버지’라는 말에서 보듯이 ‘우리’는 소유격을 전제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성을 의미한다.<sup>44)</sup>

바르트에 따르면, 예수는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으며, 예수 자신의 기도를 통해 예수와 함께 기도하며,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그리스도 자신과의 연합을 통해 한 목소리로, 또 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sup>45)</sup> 따라서 ‘우리’라는 용어는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연결된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모든 인류를 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라는 선언은 곧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기도를 의미한다. “인류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대상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류와 더불어 이러한 교제를 이룬다.”<sup>46)</sup> 바르트는 하나님의 존재만이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다고 보기에 ‘우리 아버지’의 선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 성찰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됨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며, 이를 보장해주는 근거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그의 자녀 됨은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어떠한 관계성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위대하다…… 인간의 관계성들은 근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의 이미지나 상징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아버지 됨과 자녀 됨

---

44) *Ibid.*

45) *Ibid.*

46) *Ibid.*

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 놓으신 유대 안에 존재한다.”<sup>47)</sup>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본회퍼는 주기도문에서 처음 세 가지 간청은 일차적 목적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 물론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는 수단으로서,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하늘의 보물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 나아가,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종말의 도래를 앞당기신다.”<sup>48)</sup>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받은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라는 의미는 주기도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에서 온전히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과 형제 됨으로써 고백하는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하는 인류를 향한 사랑의 언표이다. 이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기대하고 궁극적인 구속을 기다리는 은총의 공동체를 전제하게 된다.

---

47) *Ibid.*

48) Dietrich Bonhoeffer, *The Cost of Discipleship*, 149.

## V. 인격적 관계를 전제하는 공동체의 고백으로서의 ‘아버지’

현대인들에게 ‘아버지’라는 표현은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해체되고 성 역할에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또한 부각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기도문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재해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제 소개할 사상가들의 해석은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된다고 본다. ‘아버지’가 ‘남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삼위일체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다음에서 살펴보자.

오리게네스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은 ‘선언’이라고 본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신앙 고백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서에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구약에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개념과 주기도문의 아버지 개념은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신약에서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증되었기 때문이다.<sup>49)</sup> 따라서 오리게네스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적 속성을 통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

---

49) Origen, *Origen on Prayer*, 39.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2005년 6월 1일에 최종 수정, <http://www.ccel.org/ccel/origen/prayer.pdf>. [2018. 8.31. 최종 접속]. 오리게네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표현은 있지만 구약의 사람들에게 분명하면서도 아버지와 연관된 아들의 개념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Ibid.*

지”라는 선언을 통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박해의 경험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공유한다고 이해하였다.<sup>50)</sup> 아우구스티누스는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정의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얻게 됨을 확증한다.<sup>51)</sup>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선언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해야 할 대상과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상속으로서의 희망을 알게 된다고 강조한다.<sup>52)</sup> 따라서 주기도문의 첫 부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공동체적 특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써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 상속을 소망하고,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 능력을 겸비하게 된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다.<sup>53)</sup>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그리스도의 백성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롬 8:15)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데,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sup>54)</sup>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총을 받은 존재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50) Augustine of Hippo, “On Lord’s Prayer.” bartleby 홈페이지, 2015년 11월 20일에 최종 수정, <http://www.bartleby.com/268/>. [2018.8.31. 최종 접속].

51) *Ibid.*

52) *Ibid.*

53) Thomas Aquinas, *Catena Aurea: Gospel of Matthew*, Ch. 6, 223.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2005년 6월 1일에 최종 수정, <http://www.ccel.org/ccel/aquinas/catenal.pdf>. [2018.8.31. 최종 접속] 아퀴나스는 마태복음 해석에서 기독교 고전 사상가들의 해석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있다. 출처는 인터넷 자료 우측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원본의 페이지를 표시한다(필자 주).

54) *Ibid.*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을 소개한다.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성을 보여준다.<sup>55)</sup>

마틴 루터는 자신의 『소교리 문답(The Small Catechism)』에서 마태복음 6장 9-13절의 주기도문을 9개의 부분(도입, 7가지 요청, 마무리)으로 정리하여 설명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마 6:9)”는 주기도문의 도입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sup>56)</sup> “하나님은 스스로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Father)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믿음과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데, 이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sup>57)</sup>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기도의 대상이자 믿음으로 초대하는 분이다.

칼뱅은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 선언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우리는 모든 불신을 포기하며, 우리의 선을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것을 기대함”을 암시한다고 주장한다.<sup>58)</sup> 특히 하나님의 본성은 심판자가 아

---

55) *Ibid.*, 223-224. 아퀴나스는 키프리아누스의 해석을 소개한다.

56) Martin Luther, “The Our Father,” in *Luther’s Little Instruction Book: The Small Catechism of Martin Luther*, trans. Robert Ernst Smith (Fort Wayne: Indiana: Project Wittenberg, 2002).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2007년 7월 1일에 최종 수정, <http://www.ccel.org/ccel/luther/smallcat.pdf>. [2018.8.31. 최종 접속].

57) *Ibid.*

58) John Calvin, “Of Prayer: A Perpetual Exercise of Faith. The Daily Benefits Derived from It,” outline, number 36.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2005년 6월 1일에 최종 수정, <http://www.ccel.org/ccel/calvin/prayer.pdf>. [2018.8.31. 최종 접속]. 장 칼뱅은 주기도문을 6가지 요청으로 분류하는데, 이 6가지 요청을 각각 세 개씩 두 부분으로 분류했다. 먼저 처음 3가지 요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이며, 나머지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이다.(outline, number 35.)

나라 ‘아버지’이고, 그리스도이자 우리의 증언자가 되는 성령이기에, 인간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전적으로 배척된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입양된 존재’이다.<sup>59)</sup> 따라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믿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sup>60)</sup>

라이트풋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유대교 전승에서는 일반적이었다고 보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표현된다고 지적한다(출 4:22; 신 32:6 참고).<sup>61)</sup> 뿐만 아니라 구약성서에 따르면 이방인들도 자신의 신이 아버지 됨을 주장하기에(렘 2:27),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의무가 있었다고 본다(사 63:16; 64:8 참고).<sup>62)</sup> 라이트풋은 주기도문의 가르침이 철저하게 예수의 제자 공동체에 한정됨을 지적하는데, 예수의 제자 공동체 또는 신자 공동체는 철저하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양자 됨’을 인정한다.<sup>63)</sup>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의무 사항이었지만,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진 성도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라이트풋은 이해하였다.

라이트풋은 우리의 구주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실 때, 어떠한 의미로 청중들이 이해하기 원했는지를 질문

59) *Ibid.*, outline, number 37.

60) *Ibid.*, chapter 2.

61) John Lightfoot, *A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From the Talmud and Hebraica*, Ch. 6, IV. II.

62) *Ibid.*

63) *Ibid.*, Ch. 6, IV. III.

한다. 예수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sup>64)</sup>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자의적으로 이 구절을 바꾸거나 줄이는 것을 듣지 못했고, 그들은 주기도문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역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시며 가르치셨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65)</sup>

매튜 헨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개인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의 서문이라고 강조하는데, 이는 “서로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sup>66)</sup>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父性)’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며, 특히 하나님은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아버지가 되는데, 양자 삼아 주심과 신생(regenera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엡 1:5, 갈 4:6 등).<sup>67)</sup> 매튜 헨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해석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보아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마치 탕자가 그러했던 것과 같다(눅 14:18, 렘 3:19)”고 설명한다.<sup>68)</sup> “그리고 우리가 은총을 구하고, 평화를 구하며, 아들로써 유산과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화해하지 않으시며 복수하시는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시며 화해하시는 아버지로 나아가게 하는 격려가 된다”

---

64) *Ibid.*

65) *Ibid.*

66) 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Ch. VI, 1. The Preface.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2007년 7월 1일에 최종 수정, <http://www.ccel.org/ccel/henry/mhc5.pdf>. [2018.8.31. 최종 접속].

67) *Ibid.*, Ch VI, 1.

68) *Ibid.*

고 매튜 헨리는 설명한다.<sup>69)</sup>

웨슬리는 주기도문의 구조를 (1) 서론, (2) 간청, (3) 결론 세 가지로 구분한다.<sup>70)</sup> 서론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이다. 웨슬리는 이 선언이 기도의 일반적인 토대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함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웨슬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신자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만약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그는 선하시며, 그는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여기에는 기도에 대한 첫 번째이며 가장 위대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기꺼이 축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창조자이자 우리 존재의 저자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축복을 구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땅의 먼지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으며,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신 분이다.”<sup>71)</sup>

본회퍼는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는 자들은 하늘의 아버지를 마치 육신의 아버지처럼 부를 수 있고, 따라서 하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자기 자녀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형제 됨을 의미한다. 본회퍼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지닌다”

69) *Ibid.*

70) John Wesley, “Sermon 26: Up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Discourse 6,” Number 3.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2007년 7월 1일에 최종 수정, <http://www.ccel.org/ccel/wesley/sermons.pdf>. [2018.8.31. 최종 접속]. 참고로 인터넷 원본의 pdf 출처는 같은 제목 아래 작은 소단락 번호를 인용한다.

71) *Ibid.*, No. 4.



고 해석한다.<sup>72)</sup>

톰 라이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해석하면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불렀음을 지적한다. “복음서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아빠(Abba)라는 말은 마가복음 14장 36절, 겐세마네 설화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 예수가 기도할 때 실제로 이 단어를 사용했고, (2)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시각 - 이러한 관점은 물론 유대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 은 예수 자신의 특징적인 방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에 이견은 없다.”<sup>73)</sup> 따라서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통하여 한 가족과 같은 친밀성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는 ‘아버지’의 속성은 육신의 관계로서의 남성성을 의미하는 아버지가 아닌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주권자, 삼위일체의 위격을 대표하는 하나님, 심판이 아닌 용서하여 주시는 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 됨을 선포하는 공동체적 언표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주기도문의 서문에서 공동체적 특징을 사상가들의 관점을 빌려서 소개하고, 특히 ‘하늘’과 ‘우리’ 그리고 ‘아버지’의 의미를 각각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해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공동체적 윤리의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72) Dietrich Bonhoeffer, *The Cost of Discipleship*, 148.

73) N. T. Wright, “The Lord’s Prayer as a Paradigm of Christian Prayer,” 134.

## VI.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기독교 공동체 윤리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문의 서두는 여러 중요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필자는 역사적 지평 속에서 여러 사상가들이 해석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주기도문의 서문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강조한다고 본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과 연관이 된다. ‘아버지’라는 고백이 예수의 성육신 이후 비로소 입증되었다는 오리겐의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성육신 하신 예수가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의 제자들을 초대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그들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함으로써 상속을 받은 존재로 인정되고, 본회퍼의 지적처럼 예수와 그의 제자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다. 라이트풋은 ‘아버지’란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한정된다고 보았는데, 비록 그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공동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특성을 차별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주기도문의 서문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적 유비라는 맥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한다고 본다.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이 고백을 통하여 그 형상을 분명하게 회복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대 세계에서 아직도 만연한 전쟁과 테러, 맘모니즘의 폭거 등으로 인해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는 상황에서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인간의 본질과 회복해야 할 인간성을 깨우쳐 준다. 비록 ‘아버지’와 인간의 관계는 존재론적인 유비라기보다는 관계적 유비로 보아야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표방하는 아버지의 형상은 이 시대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형상임에도 틀림이 없다.

셋째, 주기도문의 서문은 관계적 윤리의 맥락에서 윤리의 인격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적인 아버지’를 고백한다. 루터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칼뱅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공동체적인 특징이고, 인격적 관계로서의 ‘아버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새롭게 형성되는 공동체에서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께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고 부른 이후 드러지는 간구는 당연히 자녀들의 몫이다.

주기도문의 서문은 또한 하나님의 위격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삼위일체적 특징을 가지며, 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성령’의 중보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아퀴나스가 강조한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과 관련이 있고, 이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부여된다. ‘아버지’는 삼위일체론적 표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감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관계, 즉 ‘삼위일체적 관계’가 드러난다.

넷째, 주기도문의 서문은 인류가 하나로서 유대하고 연대하는 공

동체의 장을 제시한다고 본다. 특히 ‘하늘’은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서 ‘하늘’은 시공간에 제한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영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땅에 거하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하늘에 거하시는데, 이처럼 하늘과 땅의 차이를 통한 비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론적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사모하게 한다. 매튜 헨리가 지적한 대로 영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은 모든 인간이 지향하여야 할 목표이며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의 공간이다. 바르트 또한 ‘하늘’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며,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하늘’은 영적인 공간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공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함께 거할 축복의 공간이다. 즉, ‘하늘’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나타나는 영적 공간이다.

주기도문의 서문은 모든 인류가 하나되어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희망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본다. 아키발드 로버트슨은 ‘우리 아버지’에 나타나는 공동체성이 단지 신자들만 경험하는 특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넘어서 ‘모든 피조물을 위한 창조주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이나 구원받은 이들이 공히 부를 수 있는 창조주와의 관계를 전제한다. 따라서 ‘아버지’는 기독교 공동체에만 허용된 표현이 아니라 우주적인 고백으로서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르트가 주기도문의 목적을 온 인류를 위함이

라고 강조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다섯째, 주기도문의 서문은 기독교 교회가 하나 되어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공동체’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본다. 박해를 감당하고 순교를 자처하는 신뢰의 공동체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버지라는 고백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겪게 되는 공동체에 대한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사모하는 심정이 담겨 있다고 본 것처럼 주기도문의 고백은 특별한 공동체성을 드러낸다. 자신이 힘들고 괴로울 때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인간의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실존적 상황과 관련된다.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린 자녀들에게 힘의 상징이고, 청년들에겐 영적 모델이며, 장년들에게는 지혜의 상징이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부모의 이미지가 많이 퇴색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녀를 돌보시는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이미지는 관계적 유비로서 매우 중요하다.

## VII.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주기도문’의 서문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드러나는 공동체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기독교 사상가들의 해석을 살펴봄에 주기도문의 ‘하늘’과 ‘우리’ 그리고 ‘아버지’의 의미를 정리하였는데, 이를 통해 반복된 기도 형식으로 말미암아 자칫 간과하기 쉬운 본래적인 뜻을 충분히 밝혔다고 본다.

주기도문은 개인적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 또한 주기도문은 ‘우리’가 참 형제자매 됨을 확인하는 축복의 통로이다.

주기도문의 서문에서 드러난 ‘제자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삼위일체’, ‘한 인류로서의 연대’, 그리고 ‘복음 공동체’의 요소들을 중시하고, 그리고 그러한 의미들을 상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이 더욱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Aquinas, Thomas. *Catena Aurea: Gospel of Matthew*. translated by William Whiston. London: J.G.F and J. Rivingston, 1942.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http://www.ccel.org/ccel/aquinas/catena1.pdf>. 2005년 6월 1일에 최종 수정. (2018년 8월 31일 최종 접속)
- Barth, Karl. “The Interpretation of the Lord’s Prayer according to the Reformers.” In *Prayer and Preaching*, Ch. III. London: SCM Press, 1964. Worldinvisible.com 홈페이지 <http://www.worldinvisible.com/library/barth/prayerpreaching/prayerpreaching.03.html>. (2018년 8월 31일 최종 접속)
- Bonhoeffer, Dietrich, *The Cost of Discipleship*, translated by Reginald H. Fuller. New York: Touchstone Press, 1995.
- Bryan, William Jennings and Francis W. Halsey, ed. *The World’s Famous Orations*. New York: Funk and Wagnalls Company, 1906. bartleby 홈페이지. [www.bartleby.com/268/](http://www.bartleby.com/268/). 2015년 11월 20일에 최종 수정. (2016년 8월 31일 최종 접속)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5.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http://www.ccel.org/ccel/calvin/prayer.pdf>. 2005년 6월 1일에 최종 수정. (2018년 8월 31일 최종 접속)
- Henry, Matthew.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Matthew to John*. Vol.5, Grand Rapids, MI: Zondervan, 1960. The Preface.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2007년 7월 1일에 최종 수정, <http://www.ccel.org/ccel/henry/mhc5.pdf>. (2018년 8월 31일 최종 접속)
- Lightfoot, John. *A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From the Talmud and Hebraica*.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79. Christian

- Classic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http://www.ccel.org/ccel/lightfoot/talmud.pdf>. 2005년 6월 1일에 최종 수정. (2018년 8월 31일 최종 접속)
- Longenecker, Richard L., ed. *Into God's Presence: Prayer i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 Luther, Martin. *Luther's Little Instruction Book: The Small Catechism of Martin Luther*. translated by Robert Ernst Smith. Fort Wayne: Indiana: Project Wittenberg, 2002.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2007년 7월 1일에 최종 수정, <http://www.ccel.org/ccel/luther/smallcat.pdf>. (2018년 8월 31일 최종 접속)
- Nestle 1904 Greek New Testament. 구글 홈페이지. <http://sites.google.com/site/nestle1904/mat/6>. 2016년 4월 2일에 최종 수정. (2018년 8월 31일 최종 접속)
- Origen. *Origen on Prayer*. translated by William A. Curtis.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2001.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http://www.ccel.org/ccel/origen/prayer.pdf>. 2005년 6월 1일에 최종 수정. (2018년 8월 31일 최종 접속)
- Pannenberg, Wolfhart. *Systematic Theology*. translated by Geoffrey W. Bromiley.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 Roberts, Alexander, James Donaldson, and A. Cleveland Coxe ed. *Ante-Nicene Fathers*. Vol. 5. Buffalo, New York: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86. New Advent 홈페이지. <http://www.newadvent.org/fathers/050704.htm>. 2009년 최종 수정. (2018년 8월 31일 최종 접속)
- Robertson, Archibald T.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Matthew*.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30.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Edition, 2007. Christian Classic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http://www.ccel.org/ccel/robertson\\_at/wp\\_matt.pdf](http://www.ccel.org/ccel/robertson_at/wp_matt.pdf). 2007년 7월 26일에 최종 수정. (2018년 8월 31일 최종 접속)
- Wesley, John. *Sermons on Several Occasions*.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Edition, 2005.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홈페이지. <http://www.ccel.org/ccel/wesley/sermons.pdf>. 2005년  
7월 13일에 최종 수정. (2018년 8월 31일 최종 접속)

모든이교회 홈페이지. <http://modenee.kr/Study/Judaism/handbook/Chapter03.htm#3.13.%20%20%20%20%20%20%20%EB%9E%8D%EB%B9%84%20%EC%9C%A0%EB%8C%80%EA%B5%90%20%EC%98%88%EC%A0%84htm#3.13.> (2018년 8월 31일 최종 접속)

**Abstract**

**“Our Father in Heaven” in the Lord’s Prayer and  
Christian Community Ethics**

Kyoung Dong Yoo, Ph. D.  
Department of Ethics and Society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Christianity, each thinkers emphasized different points of ‘The Lord’s Prayer.’ Since it is related to the current age’s state of affairs, circumstances of those who pray, and the community of faith which he/she is part of, ‘The Lord’s Prayer’ was accepted differently to people from different ages.

The author intends to examine the community spirit presented at the beginning of ‘The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Matt 6:9. NIV). Especially, the interpretation of the expressions, ‘heaven,’ ‘our,’ and ‘Father’ by the christian thinkers will be examined and will emphasize the ethical trait that appear in ‘The Lord’s Prayer.’

Generally, the research conducted on the Lord’s Prayer from the Biblical Theology’s viewpoint can be commonly observed, but the meaning was seldomly interpreted from the christian ethics’ perspective. The author will emphasize the community’s ethical viewpoints through the

phrase, “Our Father in Heaven,” and reinterpret the meaning from the modern christian ethics’ perspective.

**【Key Words】**

Lord’s Prayer, Community Ethics, Father, Heaven